

살펴 보기

: 현장탐방 - (주)화신

(주)화신

안전보건총괄 최운복 책임, 보건관리자 박미화 선임



글 김아름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주)화신은 1975년 7월 1일 설립되어 국내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주 고객인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현재 국내 언하공장, 봉동공장, 예산공장이 있고 중국(북경, 창주, 충칭)법인, 브라질법인, 인도법인, 미국법인 등 해외공장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화신 기술연구소를 두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현재 자동차 시장의 수소차, 전기차 전환에 따라 부품개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 약 1,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글로벌 기업으로 탄탄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기업이 탄탄하려면 그 기업의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도 탄탄해야 하는 법, 그 속에서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이가 바로 화신 언하공장 최운복 책임이다.

매일 아침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최운복 책임과 보건관리자 박미화 선임의 아침은 늘 분주하다.

우리 일상에 코로나19가 들어온 후 예방관리를 위해 직접 직원들의 발열체크 및 소독을 독려하고 직원들의 가족 또는 주변인들이 자가 격리 중이거나 코로나 검사 중인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는 일을 한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크고 기업과 근로자 개인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화신에서는 감염병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원의 가족이나 직원과 접촉한 사람이 자가격리 중이거나 코로나 검사 중이면 그 직원은 바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서이다.

명절연휴 전에는 직원들에게 코로나 자가진단 검사 키트를 지급하여 출근 전 각자 집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가 음성임을 확인한 후 출근을 하도록 하였다.



(주)화신 안전보건총괄 최운복 책임

회사에서의 중식시간은 부서별 식사 시간대를 달리 하여 최대한 직원들의 마주침을 최소화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해외출장이 잦은 직원들에게는 자가격리 시 국가와 별도로 기숙사 및 생필품과 물품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보건소보다 발 빠르게 동선조사 및 접촉자조사를 위한 시나리오도 미리 짜여 있다. 그러한 노력 덕분인지 현재까지 화신의 코로나 확진자는 0명이다. “코로나는 단순한 감염이 아닌 만큼 늘 예민하게 받아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직원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운복 책임의 표정에서 실제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와 직원들의 건강과 감염예방을 위한 애정이 넘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올해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한지 20년 되는 최운복 책임이 일과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현장점검이다. 현장에 들어설 때면 안전모는 필수, 안전점검 완장도 꼭 챙긴다.

“항상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감성

적 안전, 소통 안전을 강조합니다. 근로자의 불편한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듣고 작업환경을 둘러보며 개선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업무를 할 때는 혼자만의 길로 가지 않고 늘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워낙 꼼꼼하고 세밀한 성격에다가 늘 경청과 소통의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하기에 최운복 책임은 화신에서는 물론 주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남이다.

주변 공단 사업장의 안전보건담당자들에게 안전보건관리에 관련한 문의 전화가 자주 오는데 최운복 책임은 지나치지 않고 함께 공감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해 나아가려 한다.

화신의 특별한 점은 노사가 함께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이다. 노사합동 안전점검은 2005년부터 실시해왔으며 노조 부위원장, 명예감독관 등 노사가 함께 합동으로 월1회(25일) 점검한다.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선사항을 논의함과 동시에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최초 점검 시 연간 400~500건이었으나 지금은 70~80건으로 현재까지 안전점검을 충실히 하고 있다. 노사합동 안점점

검으로 2005년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표대회에 참석하여 표창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우리 화신이 하고 있는 안전보건 활동을 전국에 있는 기업체에 선보임으로써 당사의 좋은 점을 널리 알릴 수 있어 뿌듯하고 의미 있는 상이었습니다.”

올해는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산업안전보건건설탕을 받아 작업환경 개선대책을 통해 더 나은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의 건강과 생산성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직원들의 안전 확보와 무사사고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 결의’를 다졌다. 임원들은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고 앞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제가 20년 넘게 직원들에게 안전보건책임자로서 소통하며 업무를 하는 것도 회사의 든든한 지원 덕분입니다. 안전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안전한 화신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화신은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복지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보건관리자 박미화 선임은 만성질환 위험 요인인 대사증후군 유소전자 관리 및 상담을 분기별로 시행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해 식단관리 및 생활습관개선을 지도를 하고, 만 40세 이상 되는 직원들은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3년 주기로 암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직원 건강관리에 세밀히 노력하고 있다.

금연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성공하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보건소나 다른 기관에 방문이 어려운 직원들을 위하여 5년 전 회사 자체에서 금연클리닉을 시행하였다. 성공한 직원들이 꽤 있는데 그 중 최운복 책임은 지금까지 금연을 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몸소 보여 주고 있다.





“안전한 현장은 건강한 근로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건강은 안전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보건관리자인 박미화 선임과 함께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 충전 및 격려를 위해 회사에서 직접 커피차 지원 이벤트도 하였다. 이처럼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도 안전하고 건강한 화신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화신에서 2005년 설립하여 꾸준히 장학사업과 문화사업에 힘쓰고 있는 우석장학문화재단은 2021년 11월 1일 기준 2,320명이 장학금을 지급하며 사회 공헌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안전보건은 근로자 즉,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업무입니다. 직원들이 다치지 않고 웃으며 출근해서 웃으며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업무에 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빈틈없는 감염예방관리,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직원 건강관리 및 복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회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직원들

의 협조, 최운복 책임과 박미화 선임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감과 건강한 화신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이렇듯 앞으로의 화신은 오늘보다 내일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이 되리라 본다. ☺

안전한 현장은 건강한 근로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건강은 안전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보건관리자인 박미화 선임과 함께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